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어려움 요인 재구성 및 군집유형 탐색*

유 나 현[†]

고려대학교

이 기 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진로결정의 어려움 유형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먼저 기존의 대표적인 진로결정의 어려움 분류체계인 Gati와 동료들의 인지 관련 진로결정의 어려움(CDDQ)과 정서 및 성격 관련 진로결정의 어려움(EPCD), 그리고 Brown 등의 진로미결정 4요인이론(CIP)의 요인을 재구성하여 한국형 진로결정의 어려움 분류체계를 제시해 보았다. CDDQ, EPCD, CIP의 10개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정보부족과 몰입저해의 두 요인이 확인되었다. 두 요인을 이용하여 어려움 미약 유형, 정보부족 유형, 몰입의 어려움 유형, 다면적 어려움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들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개입의 시사점에 대한 함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등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진로결정의 어려움 분류체계를 한국 대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게 재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진로결정의 어려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군집유형

* 본 연구는 유나현(2014)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 Cluster-Analytic Investigation of Career Indecision Subtyp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mplications for a Taxonomy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nd Intervention'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유나현,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 02-3290-1540, E-mail : mtwinky@naver.com

우리는 일생동안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며 선택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특히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일생의 중요한 대표적인 선택 과업 중 하나이다. 고등학교에서의 계열 선택과 대학 진학 여부,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 취업 여부 및 분야 선택 등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직업을 찾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이직, 재취업, 창업, 재교육, 퇴직 후 진로까지 진로 의사결정의 문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이전의 결정이 이후의 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로결정은 여타의 의사결정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며 동시에 어려운 문제로 인식된다. 그래서인지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소년기의 대학입시라는 맹목적 목표로 인해 대학생이 되어서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황매향, 박혜영, 2005).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동일한 주제로 다뤄지기도 하였다. 진로결정의 어려움은 왜 어떤 사람들은 학업과 직업적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보다 자신 있어 하는지를 설명한다(Wanberg & Muchinsky, 1992). 그리하여 진로결정의 어려움 연구는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해 왔다. 초기의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이분법적 구분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연구자들은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발달적 미결정과 성격적 우유부단함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무결정으로 구분하였다(Salomone, 1982;

Vondracek, Hosterler, Schulenberg, & Shimezu, 1990). 그러나 발달적 미결정과 무결정의 구분의 활용도도 떨어져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주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근래까지도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 요인,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요인과 유형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Brown et al., 2012; Brown & Krane, 2000; Fuqua & Newman, 1989; Kelly & Lee, 2002; Stead & Watson, 1993).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도구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인 척도는 CDP(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nes, 1989), CFI(Career Factors Inventory; Chartrand, Robbins, Morrill, & Boggs, 1990), CDDQ(Career Decision Difficulties Questionnaire; Gati, Krausz, & Osipow, 1996), CDS(The Career Decision Scale; Osipow, 1986), CIP(Career Indecision Profile; Brown et al., 2012), 그리고 EPCD(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Gati et al., 2010)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CDS를 보완한 K-CII(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Tak & Lee, 2003)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진로결정의 어려움 척도가 개발된 것은 진로 상담에 있어서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합의된 이해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서로 동일한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하고 있지만 척도마다 구성 요인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며

연구 결과 활용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 덧붙여 다양한 척도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의 어려움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여전히 단일 요인인 진로결정 수준을 진로결정의 어려움으로 측정하고 있다(이보현 등, 2013; Creed et al., 2006; Guay et al., 2003).

이와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기존 연구자들은 보다 더 핵심적인 요인을 찾고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다. 최근의 연구(Brown et al., 2012)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요인이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추가되기 보다는 요인의 재구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이미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구성하는 잠재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발견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새로운 요인의 발견보다는 요인들이 어떻게 개인들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시도한 기존의 많은 연구와 척도 중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진로결정의 어려움 분류체계를 제시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그 중 하나는 의사결정이론에 근거하여 어려움을 정의하려고 시도한 하향식(top-down) 방식의 CDDQ(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Questionnaire; Gati et al., 1996) 및 EPCD(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Saka et al., 2008)이다. CDDQ는 준비부족, 정보 부족, 정보 불일치라는 세 가지 상위요인과 10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부족 범주에는 진로결정과정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부족,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을 고려하는 우유부단함,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기대 같은 역기능적 신념이 포함된다. 정보부족 범주

에는 의사결정 과정 단계에 대한 정보 부족, 자기에 대한 정보 부족,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CDDQ는 광범위한 의사결정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했으며 준비성 부족, 동기부족, 우유부단, 역기능적 신념의 내적 함치도가 낮은 지적을 받아왔다(Gati et al., 1996; Gati, Osipow, Krausz, & Saka, 2000). CDDQ의 공동저자인 Gati는 정서 및 성격 관련 진로결정의 어려움 척도(EPCD)를 다시 공동 개발하면서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했던 기존의 체계를 보완했다. EPCD는 11개의 어려움 범주와 이들의 상위 요인인 비관적 관점, 불안, 자기와 정체감으로 이루어졌다. 비관적 관점은 낮은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직업 세계에 대한 비관적 관점, 그리고 과정, 선택, 결과에 대한 개인의 통제감에 대한 비관적 관점으로 구성된다(Gati et al., 2011). 불안 요인은 과정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선택에 대한 불안, 결과에 대한 불안을 포함한다(Gati et al., 2011). 자기와 정체감에는 특성 불안, 자아존중감, 구체화 되지 못한 정체감, 갈등적 애착과 분리가 포함된다.

또 다른 하나는 축적된 진로미결정 관련 변인들을 기초로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구성하기 위해 Brown 등(2012)이 최근 개발한 CIP(Career Indecision Profile; Brown et al., 2012)이다. Gati 등(1996)은 하향식 방식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방해하는 요소를 어려움으로 구성했다면, CIP(Brown et al., 2012)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현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반적인 구성을 도출했다. 이 척도는 Brown과 Rector(2008)의 진로미결정 4요인 이론에 기초한다. Brown과 Rector

(2008)는 진로미결정과 관련되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진 모든 변인을 포함하는 24개의 연구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진로미결정의 잠재변인을 도출하였다. Brown과 Rector (2008)의 연구에서 도출된 만성 무결정/부적정서, 정보부족, 외적 장애/내적 갈등, 준비성 부족의 4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Brown 등(2012)은 척도를 구성하고 4가지 요인이 확인되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요인은 신경증/부적 정서로 결정으로 인해 잘못될 것에 대해 집중하는 경향,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적 정서나 취약함을 경험하는 경향,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향,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경향을 포함한다. 두 번째 요인은 선택/몰입 불안으로 자기와 직업 정보 요구, 접근-접근 갈등, 불안감, 다양한 이유로 선택으로 몰입할 수 없는 상태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요인은 준비성 부족으로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 지향성, 성실성, 합리적 의사결정 기술 부족으로 특징지어진다. 네 번째 요인인 대인간 갈등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진로 계획에 대한 지지 부족과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Brown et al., 2012). 비서구권 국가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는 5요인이 확인되었다(Abrams et al., 2015). 자기와 직업 정보 요구가 서구권 결과에서는 선택/몰입 불안에 포함되었으나 국내 샘플에서는 분리된 요인으로 도출되어 정보 요구라고 명명되었다(Abrams et al., 2015). Abrams 등(2015)은 정보 요구와 선택/몰입 불안의 구분이 서구권 샘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설명하였다. 미래 지향적인 사회는 계획, 미래를 위한 투자, 인내, 끈기, 만족 지연 능력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데(Abrams et al., 2015),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이 미국보다 계획적이며 자기와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계획, 목표 정립, 의사결정 과정의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CIP는 진로미결정 연구에서 다뤄진 많은 변인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 없이 상향식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통계적 수치에 근거한 요인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Gati와 동료들의 모형과 Brown 등(2012)의 모형은 완전히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며 실제로 상향식 방식에서 Gati 등(1996)의 내용을 일부 차용하기도 하였다(Brown et al., 2012). 내용면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만성적 우유부단함, 정보 부족, 대인간 갈등, 불안, 비관적 관점, 정체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요인의 조합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진로결정의 어려움 척도들 중 가장 근래에 개발되기도 했으므로 축적된 연구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면서도 중요한 진로결정의 어려움 요인을 잘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ati와 동료들(1996, 2008)의 모형과 Brown 등(2012)의 모형은 요인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요인들이 실제 얼마나 유용한지, 개인들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잘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인 초기까지 정체감에 대한 고민을 미뤘다는 점(이송이, 2014),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으로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Gysbers, Heppner, & Johnston, 1998; Osipow & Fitzgerald, 1996)을 고려할 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요인의 재구성과 유형의 이해

가 필요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는 개인의 신념으로(Hackett & Betz, 1989)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진로적응, 우연 등의 개념을 고려할 때 진로결정이 진로상담의 최종 목표는 아닐 수 있지만,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보다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유연하고 적응적인 진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태도라고 여겨진다. 이에 진로결정의 어려움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진로결정의 어려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둘 간의 부적 관련성은 많은 연구에서 꾸준히 나타났다(Di Fabio et al., 2013). 따라서 진로결정의 어려움 유형의 어려움 수준과 내용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유형의 타당성과 유의미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겠다. 더불어 어려움의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차별적 개입을 위한 차별적 진단에 추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여전히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 되고 있다. 차별적인 개입을 위해 결정의 어려움이 있는 개인들을 동질적으로 취급하기보다 서로 다른 어려움으로 구분 짓고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최근의 흐름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관심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합의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의 수준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변인들이 진로결정의 어려움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혀왔지만 이러한 변인들을 종합하여 진로결정의 어려움 분류체계를 시도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Gati와 동료들(1996, 2008)과 Brown 등(2012)이 그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포괄적이며 하향식 방식으로 이론에 근거한 진로결정의 어려움 분류체계와 기존에 연구된 진로결정의 어려움 관련 연구를 상향식 방식으로 재구성한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재구성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어려움 군집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분류체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기존의 진로결정의 어려움 관련 요인을 빠짐없이 포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대학생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류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이들의 관련성을 밝혀 유사한 부분은 통폐합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요인의 구성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국내 대학생들의 표본으로 진로결정의 어려움 요인이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적은 공통요인으로 재구성되는지 확인하고 축약된 요인들을 이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해보므로써 국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연구 문제

1. CDDQ, EPCD, CIP의 하위요인 간 관계는 어떠한가?
2. CDDQ 및 EPCD와 CIP 요인을 이용한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의 어려움 군집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 군집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2014년 3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 목적, 중도 참여 포기 가능,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실시는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인 서베이몽키(www.surveymonkey.com)를 이용하였고, 지필 실시는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지방 소재 8개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참가자 권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온라인 설문 또는 서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총 306명이며 연령은 18세부터 27세 사이로 평균 21.51($SD=3.71$)세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168명(54.9%), 여자 138명(45.1%)이 확인되었으며, 학년 분포는 1학년 54명(17.6%), 2학년 99명(32.4%), 3학년 58명(19.0%), 4학년 91명(29.7%), 초과학기 4명(1.3%)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인지 관련 진로결정의 어려움(CDDQ: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Questionnaire)

인지적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Gati 등(1996)이 개발하고 Sovet와 Metz(2014)

의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CDDQ(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준비성 부족(10문항), 정보부족(12문항), 정보 불일치(10문항)의 하위차원과 타당성 검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하위차원은 다시 10개의 소 하위차원으로 구분된다. 9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며(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요인 중 준비성 부족은 해당 문항별 상관관계수가 -.16에서 .30 사이로 나타났으며, 준비성 부족 하위요인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44로 지나치게 낮았다. 그 결과 준비성 부족 요인을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보부족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 정보 불일치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였다. Sovet 등(2014)의 연구의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정서 및 성격 관련 진로결정의 어려움 (EPCD: 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Scale)

정서 및 성격 관련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Saka 등(2008)이 개발하여 Gati 등(2011)이 축약하고 Jin, Nam, Joo와 Yang(2015)가 타당화한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Short Form (EPCD-SF)을 사용하였다. EPCD-SF는 진로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어려움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측정한다. 비판적 관점(6문항), 불안(8문항), 자기와 정체감(8문항)의 3개

하위척도와 11개의 소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화 문항과 warm-up 문항을 포함하여 총 25문항이다. 9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며(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어려움의 주관적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비관적 관점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8, 불안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 자기와 정체감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8이었다. 그러나 자기와 정체감 하위요인의 갈등적 애착과 분리에 해당하는 두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각각 .37과 .27로 지나치게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Jin 등(201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Jin 등(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진로미결정 4요인 이론(CIP: Career Indecision Profile)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미결정 4요인 이론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CIP-167(Brown 등, 2012)을 Hacker, Carr, Abrams와 Brown(2013)이 축약하고 Abrams 등(2015)이 변안한 CIP-6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경증/부적 정서(21문항), 선택/몰입 불안(24문항), 준비성 부족(15문항), 대인간 갈등(5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5문항이다. 6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며(1=전혀 그렇지 않다, 6=아주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Abrams 등(2015)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4요인이 아닌 선택/몰입 불안에서 정보 요구가 분리되어져 나온 5요인이 보다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신경증/부적정서 요인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준비성 부족 요인은 문항-전체 상관계수 중 하나의 문항이 .28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준비성 부족 요인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대인간 갈등 요인의 경우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83, 선택/몰입 불안 요인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정보요구 요인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7이었으나 한 개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39로 낮아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brams 등(2015)의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5-.92였다. 본 연구의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DMS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진로결정 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F)의 단축형을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F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기학 등(200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8-.79였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분석 방법

척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 내적합치도가 지나치게 낮은 요인 및 문항을 제외한 CDDQ 2개 하위요인(정보부족, 정보 불일치), EPCD 3개 하위요인(비관적 관점, 불안, 자기와 정체감), CIP 5개 하위요인(신경증/부적 정서, 준비성 부족, 대인간 갈등, 선택/몰입 불안, 정보요구) 등 총 10개 하위요인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통해 이들 간의 밀접한 상관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두 분류체계의 10개 하위요인을 SPSS 2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재구성된 하위요인이 실제 대학생들에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검토하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의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분석을 연달아 실시하는 것으로 위계적 군집분석만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된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진로결정의 어려움 하위요인 5개를 Z점수로 변환한 후 군집변인으로 투입하고 Ward 방법을 사용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였다. 그리고 군집변인들의 평균점수를 Seed point로 설정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분석을 통해 최종 군집을 확정하였다. 군집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 상관계수는 .128에서 .670으로 나타났으며, CIP의 대인간 갈등과 정보요구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하위요인 간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EPCD의 자기와 정체감과 CIP의 신경증/부적정서 간의 상관계수는 .6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DDQ, EPCD, CIP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CDDQ, EPCD, CIP의 하위요인 10개를 보다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고자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 KMO 값이 .834(기준치 .50보다 높다)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igenvalue를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추출해 본 결과 2요인이 전체 변량의 59%를 설명하였다. 이는 사회과학에서 전체 요인들의 설명력 기준을 대체로 60% 내외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이학식, 임지훈, 2013). 그러나 신경증/부적정서의 공통성(communality) 수치가 .50보다 낮게 나와 이 변수를 해석에서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신경증/부적정서 변인은 두 요인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

표 1. 변인들 간 상관관계

	1. C정보 부족	2. C정보 불일치	3. E비관적 관점	4. E불안	5. E자기와 정체감	6. B신경증/ 부적정서	7. B준비성 부족	8. B대인간 갈등	9. B선택/ 몰입 불안	10. B정보 요구	11. 진로결정 효능감
1	-										
2	.566**	-									
3	.641**	.522**	-								
4	.612**	.503**	.600**	-							
5	.581**	.506**	.565**	.638**	-						
6	.362**	.413**	.330**	.479**	.670**	-					
7	.197**	.269**	.271**	.158**	.294**	.212**	-				
8	.206**	.445**	.244**	.197**	.298**	.318**	.324**	-			
9	.468**	.640**	.458**	.532**	.464**	.346**	.198**	.315**	-		
10	.544**	.288**	.374**	.375**	.320**	.187**	-.128*	.065	.425**	-	
11	-.513**	-.401**	-.510**	-.366**	-.446**	-.329**	-.550**	-.255**	-.373**	-.287**	-
M	60.01	40.24	26.12	44.43	39.26	64.65	31.14	11.84	32.62	21.36	84.72
SD	18.30	14.05	8.34	12.24	10.60	16.24	7.67	5.11	8.86	4.18	13.13

주. ** $p < .01$, * $p < .05$

주. C: CDDQ, E: EPCD, B: CIP

되었다(표 2). 그 결과 정보부족, 불안, 비관적 관점, 정보 요구, 자기와 정체감, 선택/몰입 불안, 정보 불일치가 하나의 요인을, 준비성 부족과 대인 간 갈등이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요인의 경우, 정보부족과 불안, 잘못될 것을 걱정하는 특성이 공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된 호소 내용은 정보부족일 것을 감안하여 정보부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의 경우, 준비성 부족이 정체감 혼란, 자기 명확성 부족,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낮은 진로태도성숙, 동기부족, 낮은 성실성을 포함하고 타인의 지지부족 등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진로 준비와 결정으로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보인다. 이에 두 번

표 2. CDDQ, EPCD, CIP 하위요인에 대한 회전된 요인행렬

변수	Factor	
	1	2
C 정보부족	.835	.095
E 불안	.788	.180
E 비관적 관점	.738	.236
B 정보 요구	.736	-.353
E 자기와 정체감	.694	.396
B 선택/몰입 불안	.690	.247
C 정보 불일치	.646	.444
B 신경증/부적정서	.494	.462
B 준비성 부족	.038	.778
B 대인간 갈등	.177	.689

주. C: CDDQ, E: EPCD, B: CIP

책 요인을 몰입저해라고 명명하였다.

재구성된 CDDQ, EPCD, CIP 하위요인을 이용한 유형

CDDQ, EPCD, CIP의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재구성된 두 요인을 군집변인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자연발생적인 진로결정의 어려움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연발생적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의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 변화폭과 해석가능성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4개 군집으로 결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3).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s)으로 투입하여 2단계 K-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네 개의 군집에 배정되었다. 군집 1은 90명, 군집 2는 66명, 군집 3은 74명, 군집 4는 76명으로 나타났다. 네 개 하위집단의 양상을

확인하고 명명하기 위해 네 집단의 최종 군집 중심점을 이용하여 정보부족과 몰입저해에 따른 네 군집의 특징을 그림 1로 나타냈다. 군집 1은 정보부족이 상승하고 몰입저해 요인이

표 3. 군집화 일정표

단계	군집화 계수	계수 차이
305	610.000	
304	347.452	262.548
303	255.822	91.63
302	209.584	46.238
301	178.370	31.214
300	150.219	28.151
299	132.559	17.66
298	115.470	17.089
297	100.644	14.826
296	90.617	10.027
295	81.219	9.398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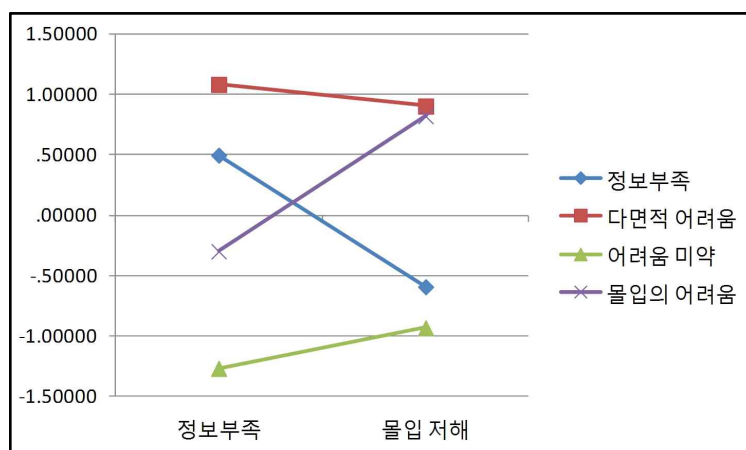


그림 1. 정보부족, 몰입저해에 따른 군집의 특징

낮은 정보 부족 집단으로 나타났다. 군집 2는 두 변인이 모두 상승하여 기존의 유형에서 나타났던 다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단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면적 어려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군집 2와 반대로 정보부족, 몰입저해 요인이 모두 낮은 수준이므로 어려움 미약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몰입저해 요인이 상승하고 정보부족은 낮은 특성을 나타내 몰입의 어려움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위집단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구성된 하위집단들 사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어떤 하위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어려움 미약 집단($M=96.85, SD=10.85$), 정보부족 집단($M=85.47, SD=10.99$), 몰입의 어려움 집단($M=80.05, SD=10.08$), 다면적 어려움 집단($M=75.47, SD=10.65$) 순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몰입의 어려움 집단과 다면적 어려움 집단 간 차이의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4).

논 의

진로는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의 어려움은 청소년기에 고민하지 않고 대입 준비에 전념했던 결과가 가져온 뒤늦은 정체감에 대한 고민이다. 이에 덧붙여 가중된 취업난과 생계유지를 위한 진로에서 삶을 즐기는 진로로의 가치관 변화, 예측하기 어려운 직업 세계의 변화는 대학생들을 더 혼란에 빠지게 하고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이 같은 혼란스러움에 개입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대표적인 진로결정의 어려움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여 보다 경제적인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결정의 어려움 유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결과에 대해 논해보면 다음과 같다. CDDQ, EPCD, CIP의 10개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보부족, 불안, 비판적 관점, 정보 요구, 자기와 정체감, 선택/몰입 불안, 정보 불일치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요인은 준비성 부족과 대인 간 갈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4. 하위집단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와 사후검증

	제공합	df	평균제공	F	사후검증
집단 간	18242.437	3	6080.812	53.498***	3>1>4,2
집단 내	34326.353	302	113.663		
합계	52568.789	305			

주. *** $p<.001$

주. 1: 정보부족, 2: 다면적 어려움, 3: 어려움 미약, 4: 몰입의 어려움

첫 번째 요인의 경우, 정보부족, 정보 요구, 정보 불일치는 기존 요인 명에서도 이미 공통적 특성임이 드러난다. 또한 정보부족이란 대체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고려할 때 정보부족과 자기와 정체감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재구성된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정보부족과 불안이 밀접히 관련될 뿐 아니라 공통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밝힌 기존연구들은(Brown et al., 2012; Brown & Rector, 2008) 첫 번째 요인의 구성이 내용면에서도 적절함을 확인시켜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요인이 비록 정보부족을 호소하는 이면의 불안과 잘못된 것을 걱정하는 특성이 공존함을 보여주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주된 호소 내용이 정보부족일 것을 감안하여 정보부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의 경우, 준비성 부족과 대인 간 갈등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준비성 부족은 정체감 혼란, 자기명확성 부족,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낮은 진로태도성숙, 동기부족, 낮은 성실성을 포함한다(Brown et al., 2012). 그리고 대인 간 갈등은 타인의 지지부족, 불일치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다(Brown et al., 2012). 이들은 모두 진로 준비와 결정 과정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판단되었다. 이에 두 번째 요인을 몰입저해라고 명명하였다.

이어서 정보부족과 몰입저해를 군집변인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어려움 유형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정보부족이 높고 몰입저해가 낮은 정보부족 집단, 둘 다 높은 다면적 어려움 집단, 둘 다 낮은 어려움 미약 집단, 정보부족은 낮고 몰입저해가 높은 몰입의 어려움 집단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연구들(Cohen, Chartrand, & Jowdy, 1995)이 제안해 온 네 가지 유형과 어느 정도 유사한 양상을 띤다. Cohen 등(1995)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첫 번째 군집은 강한 정보요구를 보이는 발달적으로 미결정 상태인 유형으로 본 연구의 정보부족 집단과 같은 양상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자기와 직업 세계에 대한 명료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특성으로 높은 자존감이 예상된다(Cohen, Chartrand, & Jowdy, 1995). 본 연구의 요인 구성을 고려할 때 이들은 자기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불안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 관점의 특성도 함께 지닌다. 두 번째 군집은 다면적 어려움 군집이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정체감 수준이 낮고, 정보 요구 수준은 높고,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Callanan & Greenhaus, 1992; Chartrand et al., 1994; Fuqua et al., 1988; Larson et al., 1988; Lucas & Epperson, 1988, 1990). 본 연구의 다면적 어려움 군집도 유사한 특징을 지닐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군집은 결정할 준비가 된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도 도출된 어려움 미약 유형과 같은 군집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군집은 몰입의 어려움 군집으로 정보 요구는 낮지만 정체감, 진로결정 효능감도 낮고 동기 부족, 타인의 지지 부족 등의 특성을 보였다.

진로결정의 어려움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몰입저해 요인이 상승하는 다면적 어려움 집단과 몰입의 어려움 집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였다. 반면 어려움 미약 집단은 가장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나타냈고 이어서 정보부족 집단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중심으로 각 유형의 특성을 기존연구와 관련지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부족 유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어려움 미약 유형에 이어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 연구의 정보부족 유형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단지 몇 차례의 정보 제공만 이루어지면 괜찮은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ulton et al., 2007). 비록 불안 수준이 높고 비관적 관점을 보이더라도 진로결정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부족인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목표가 달성될 수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Larson et al., 1988). 또한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로막히게 됨을 느낀다(Chartrand et al., 1994; Larson et al., 1988; Gati, Fassa, & Houminer, 1995). 따라서 직업세계, 자기,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겠다. 연구자들(Brodbeck, Chhokar, & House, 2007; Gupta, Hanges, & Dorfman, 2002; Hofstede, 1991)에 따르면 미래지향적인 특징은 한국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한국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부족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단순히 정보부족의 의미를 넘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지각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다면적 어려움 유형은 몰입의 어려움과 정보부족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진로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유형의 특성은

불안(Chartrand et al., 1994; Lucas, 1993; Wanberg & Muchinsky, 1992), 우유부단함(Wanberg & Muchinsky, 1992), 외적 통제감(Lucas, 1993; Wanberg & Muchinsky, 1992), 낮은 자존감(Chartrand et al., 1994; Lucas, 1993; Wanberg & Muchinsky, 1992),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Lucas, 1993) 등이다. 이들은 진로를 결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선택한 진로로 몰입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Brown & Rector, 2008),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려움 미약 유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정과 관련된 개입의 필요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진로에 대한 확신도 있으며 진로 상담에 대한 요구도 가장 적을 수 있다. 또한 Multon 등(2007)의 연구에서 도출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진로 선택에 대해 분명한 집단과 유사하다 하겠다. 어려움 미약 유형이 진로 상담에 찾아온다면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단순한 확신이나 재확인 제공이 유용할 것이다(Multon et al., 2007).

몰입의 어려움 유형은 타인에게 의존하며, 정체감 혼란,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동기부족, 낮은 진로태도성숙, 낮은 성실성 특성을 지닌 반면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다. 이들은 다른 군집분석 연구들(Chartrand et al., 1994; Lucas & Epperson, 1990)에서 확인되었던 무결정의 특성과 준비성 부족이 함께 나타나는 집단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정체감 부족, 진로 목표의 불안정성, 우유부단함, 낮은 자존감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이 유형은 다면적 어

려움 유형과 함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결정의 어려움은 수준, 영역, 미결정과 무결정의 구분 등 개념적 정리가 안된 상태로 연구되어져 왔다. 진로상담이 차별적 진단과 개입을 표방하였지만 기존 진로결정의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척도와 다양한 하위 영역에 대한 불일치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본 연구는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가장 최근 척도와 그간 진로결정의 어려움 하위영역을 나누는 데 대표적인 분류체계로 활용되어져 왔던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을 분류해 봄으로써 활용도 높은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모형이 제시한 10개의 요인이 단 두 개의 공통요인으로 재구성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분류체계대로 하위요인을 다양한 내용으로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개의 요인은 뚜렷한 유형의 구분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두 개의 요인으로 진로결정의 어려움 유형을 설명하였던 연구는 기존에도 있었다. Chartrand 등(1994)의 연구는 정보 요인과 정서 요인의 조합으로 진로결정의 어려움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보의 어려움만 있는 유형, 정서적 어려움만 있는 유형, 둘 다 어려움이 있는 유형, 둘 다 어려움이 없는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매우 흡사한 결과이다. 유나현과 이기학(2016)의 연구에서 CDDQ와 EPCD는 개별 요인의 설명력 없이 오로지 어려움 수준에 따른 차이만 확인되

어 본 연구 결과에서 10개의 각 요인이 개별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발달적 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CDDQ의 총점을 이용한 Di Fabio 등(2013)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개별 요인보다는 총점을 연구에 활용해왔다. 즉 개별 요인이 지니는 설명력보다 어려움 수준이 갖는 가치를 더 중요시 한 것이다. 본 연구의 2개 요인은 10개 요인의 불필요한 구분을 경제적으로 축소하며 동시에 오로지 총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한국 대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입시까지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 청소년기에 진로와 관련된 일종의 정체감 유실상태에 있었다(김봉환 등, 2010). 획일적인 진로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후 다양한 가치관과 직업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서양의 대학생들이 아동기 청소년기를 통해 조금씩 발달시켜온 진로를 대학생활 동안 압축하여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김봉환 등, 2010). 따라서 진로결정의 어려움이 요인별로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특성으로 사료된다. 그 결과 진로결정의 어려움의 하위 요인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나고 요인의 개별 효과보다 뭉뚱그려진 요인이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의미 있다고 밝혀온 진로결정의 어려움 요인을 공통요인으로 재구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의 특성일 수 있으므로 다른 다양한 표본을 통해 재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특성일 수도 있다. 따라서 종단적인 변화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결정의 어려움 하위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진로결정의 어려움 분류체계를 새로이 제시하였기 때문에 각 유형의 특성 차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으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영근 등(2011)의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도 우수부단함 등의 성격적 특성이 있으면 진로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혔다. 차후 연구에서는 유형별 특성을 기존 분류체계와 비교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진로상담을 실제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Multon, 등(2007)은 일반인과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차후에는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의 양적 수준과 질적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진로결정의 어려움의 이해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차별적인 군집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개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2010). 진로상담이론 한국내담자에 대한 적용. 학

지사.

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1). 대학생의 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우수부단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95-1016.

유나현, 이기학 (2016).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어려움 군집유형에 따른 상담개입목표 차이 연구. 진로교육연구, 29(2), 237-256.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검증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이보현, 두훈, 이은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3). 대학생의 특성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있어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383-1400.

이송이 (2014).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1), 109-128.

이학식, 임지훈 (2013). SPSS 20.0 매뉴얼. 김현재.

황매향, 박혜영 (2005).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12, 157-176.

Abrams, M. D., Lee, I., Brown, S. D., Carr, A. (2015). The Career Indecision Profile: Measurement equivalence in the U.S. and South Korea.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2), 225-235.

Brodbeck, F. C., Chhokar, J. S., & House, R. J. (2007). Culture and leadership in 25 societies: Integration, conclus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J. S. Chhokar, F. C. Brodbeck, & R. J.

- House (Eds.), *Cultures and leadership across the world: The GLOBE book of in-depth studies of 25 countries* (pp. 1023-1084). Mahwah: Erlbaum.
- Brown, S. D., Hacker, J., Abrams, M., Carr, A., Rector, C., Lamp, K., Telander, K., & Siena, A. (2012).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 3-21.
- Brown, S. D., & Rector, C. C. (2008). Conceptualizing and diagnosing problems in career decision-mak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th ed., pp. 392-407). New York, NY: Wiley.
- Brown, S. D., & Krane, N. E. R. (2000). Four (or five) sessions and a cloud of dust: Old assumptions and new observations about career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740-766). New York, NY: Wiley.
- Callanan, G., & Greenhaus, J.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3), 212-231.
- Chartrand, J. M., Martin, W. F., Robbins, S. B., McAuliffe, G. J., Pickering, J. W., & Calliotte, J. A. (1994). Testing a level versus an interactional view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 55-69.
- Chartrand, J. M., Robbins, S. B., Morrill, W. H., & Boggs, K.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491-501.
- Cohen, C. R., Chartrand, J. M., & Jowdy, D. P. (1995).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0-447.
- Creed, P. A., Patton, W., & Prideaux, L. (2006).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47-65.
- Di Fabio, A., Palazzeschi, L., Asulin-peretz, L., & Gati, I. (2013). Career indecision versus indecisiveness associates with personality 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1), 42-56.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4), 365-373.
- Fuqua D. R. & Newman, J. L. (1989).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 among career sub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87-491.
- Gati, I., Fassa, N., & Houminer, D. (1995). Applying decision theory to career counseling practice: The sequential elimination approach.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3), 211-220.
- Gati, I., Gadassi, R., Saka, N., Hadadi, Y., Ansenberg, N., Friedmann, R., & Asulin-Peretz, L. (2011).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facets of career indecisiven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1), 3-20.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ati I., Landman, S., Davidovitch, S., Asulin-

- Peretz, L., & Gadassi, R. (2010). From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o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277-291.
- Gati, I., Osipow, S. H., Krausz, M., & Saka, N. (2000).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y questionnaire: counselee versus career counselor percep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1), 99-113.
- Gati, I., & Tal, S. (2008). Decision-making models and career guidance. J. Athanasou, R. Van Esbroec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areer guidance*, Springer, Berlin, Germany.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65-177.
- Gupta, V. Hanges, P. J., & Dorfman, P. (2002). Cultural clusters: Methodology and findings. *Journal of World Business*, 37(1), 11-15.
- Gysbers, N. C., Heppner, M. J., & Johnston, J. A. (1998). *Career Counseling. Contexts, Process, and Techniques*. Boston: Allyn & Bacon.
- Hacker, J., Carr, A., Abrams, M., & Brown, S. D. (2013). Development of the Career Indecision Profil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1), 32-41.
- Hackett, G. & Betz, N. E. (1989). An Exploration of the Mathematics Self-Efficacy/Mathematics Performance Correspondence.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20(3), 261-273.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fstede, G.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 Jin, L., Nam, S. K., Joo, G., & Yang, E. (2015). Validation of a Korean translation of the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scale-short form (EPCD-SF).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2), 294-307.
-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77-486.
- Kelly, K. R. & Lee, W. C. (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2), 302-326.
- Larson, L. M., Heppe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39-446.
- Lucas, M. S. (1993).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40-446.
- Lucas, M., & Epperson, D. (1988). Personality types in vocationally undecided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9(5), 460-466.
- Lucas, M., & Epperson, D. (1990). Types of vocational un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fin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382-388.

- Multon, K. D., Wood, R., Heppner, M. J. & Gysbers, N. C. (2007). A cluster-analytic investigation of subtypes of adult career counseling clients: Toward a taxonomy of career problem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66-86.
- Osipow, S. H. (1986). Career issues through the life span. M.S Pallak, R.O Perloff (Eds.), *Psychology and work: Productivity, change, and employment*, APA Master Lecture Serie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Osipow, S. H., & Fitzgerald, L. F. (1996).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4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 Salomone, P. 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II-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 Guidance Journal, 60*(8), 496-500.
- Sovet, L., & Metz, A.J. (2014). Parent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among French and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3), 345-355.
- Stead, G. B. & Watson, M. B. (1993). How similar are the factor structures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and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1), 281-290.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Vondracek, F. W., Hosterler, M., Schulenberg, J. E., & Shimiz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98-106.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원 고 접 수 일 : 2016. 08. 23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1. 15

게 재 결 정 일 : 2016. 12. 05

The Exploration of Reconstructed Factors and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Nahyun Yoo

Korea University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ovide a taxonomy system regarding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y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as well as explore specific types of difficulty. Factor analysis on 10 CDDQ, EPCD, and CIP factors confirmed both lack of information and commitment hindrance as difficulty factors. Weak difficulty, lack of information, commitment difficulty, and multidimensional difficulty were extracted using the 2 factors. ANOVA was performed to observe any differen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the subtypes.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n understanding of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y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that it was able to reconstruct the representative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y taxonomy systems to be more appropriate for Korean students. Results, intervention implications, significance,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luster type*